

## '가처분' 불구 대결구도 안풀어

조계종 총무원이 신청한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11일 총무원측 승소 판결을 내린 이후 총무원측과 정화회의측의 맞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에 상당한 힘을 받은 총무원측은 퇴거 단행의 법적 집행에 힘을 쏟으며 총무원장 선거 일정을 공고하는 등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화회의측도 사법부의 판결이 종교 내부의 문제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별도로 총무원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정화회의측이 일부 지역 사찰주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 지방 사찰 접수 가능성을 두고 긴장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 총무원-선관위, '29일 선거' 일정 확정      정화회의, 주지임명등 독자행보 모색

11일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의 승소 판결로 법적, 여론적으로 상당한 힘을 받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과 총회측은 제29대 총무원장 선거 일정을 공고하고 정화회의측에 가담된 총회위원을 제명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총회, 총단정당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원장 선거로 인한 사태를 풀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9일 오후 1시 조계사에서 제29대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덕은)는 14일 제40차 회의를 갖고 29일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14일 중앙총회와 15일 총단정당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교구본사주지회의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선거를 통한 새 집행부의 구성이 종단사태 해결의 첩경이라는 것이 전방적인 의견이었다"며 "2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확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장소와 관련된 종단 사태를 지켜 본후 제2의 장소에서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7일 열린 제 136회 임시총회에서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29일선거를 치르기 위해 14일자로 선거 실시공고를 냈으며 21일과 22일 이불간 후보자를 추가등록 받을 계획이었다.

29일 선거는 전체 314명의 투표인단에 의해 실시된다. 7일 임시총회에서 총회위원 겸정스님(17교구)이 의원직을 사퇴했고 14일 임시총회에서는 정우, 원학, 현근, 현소, 법일, 성문 스님 등 6명의 의원스님이 11월 30일 승려대회 결의에 따라 재명결의했기 때문이다. 임연태 기자 (ytilm@buddhapia.com)

정화회의는 29일 이전에 총무원장을 뽑는 한편 교구본사를 비롯 주요사찰의 주지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정화회의는 1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총무원장 현소스님은 "지금 법적위에서 총무원장선거를 만들고 있다. 법이 완성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총무원장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선출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내"라고 밝혀 29일 이전 가능성이 높다. 총무원장 선출 방법과 관련 정화회의는 '원로회의' 민정일치 선출-총정의 인준-총정 명의 임명장 수여 방식 등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기는 5년 단임으로 못박고, 권한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주지 인사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9일 24교구본사 선운사에 대우스님을 새 주지로 발령했다. 정화회의의 부위원장 현근스님은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봉선사 주지 밀운스님은 총정스님의 말씀을 왜곡한 사람"이라고 말해 봉선사도 인사대상 사찰에 포함할 것임을 시사했다. 제 17교구본사 금산사와 영화사에 대한 인사 방침도 밝혔다.

정화회의는 1년 분담금이 30억원에 이르는 선본사(자바위)도 직영사찰에서 해체했다. 선본사는 은혜사 말사로 편입돼 은혜사에서 주지를 발령할 계획이다. 정화회의는 또 △수령·포교 중심의 종단 운영 △총정 및 원로회의 권한 강화 △본사중심제 확립 △비구니 특별교구, 군승단 특별교구, 해외 특별교구 신설 △재가불자 교단운영 참여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인증캠페인을 해서 번 돈을 어려운 이웃에게 아낌없이 보시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는 밥값조차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할머니의 육은 음악소리 처럼 들립니다. 주변에서 할머니의 밥을 시켜 먹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서울 종문사 신도인 육정이 할머니는 40년째 식당을 하면서도 한번도 밥값을 따져서 받은 적이 없다. 시계골목에서 배달을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한끼에 1천원도 받고 2천원도 받는다. 더러 공



짜밥이 미안해 배달일을 돕는 청년들도 있다. 점포를 운영하는 '사정님'들에게는 예우가 없이 4천원을 받는다. 청소년 아저씨나 시장 경비원들에게는 '내고 싶은만큼'만 받고 어쩌다 한번씩 들르는 교통경찰들에게는 아예 밥값이 얼마냐는 질문도 못하게 한다.

젊은 시절 남권을 입고 망연해 하던 중, 아들의 학비가 없어 고동 당하는 친구에게 품고 있던 재산의 절반을 선물 태어주고 시작한 이 밥집은 육정이 할머니가 평생 남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보살행을 해 온 도량인 셈이다. 할머니에게 공짜 밥을 얻어먹고 자수성가한 사람도 10여명이 넘고 할머니의 도움으로 공부할 해 사회의 지도층이 된 사람도 여럿이다.

올 겨울 육정이 할머니는 심란하다. 자꾸 아파 오는 허리와 결려 오는 어깨 때문이다.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밥집을 꾸러가게 힘이 부치는 것이다. 그래서 점포를 넘겨주기로 했다.

"누군가 밥의 공덕을 아는 사람이 와서 내 뜻을 이어 주었으면 좋겠지만 요즘세상에 그런 엄청난 조자가 있을까 봐라."

김정은 기자(jekm@buddhapia.com)

## '청사 퇴거' 18일 집행 무산

### 정화회의 불응...공권력 투입 수순 밟을듯

11일 서울지법의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른 법원의 집행이 18일 오전 8시 시도됐으나 조계사 신도들의 강경한 저지와 정화회의측의 불응으로 무산됐다. 이날 아침 조계사 정문앞에 도착한 강석열 집행관의 2인과 총무원측 이현 변호사는 미리 대기중인 조계사 신도와 장애인들의 저지로 경내에 들어가지 못했다. 집행관측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공무를 수행하려 왔다"며 길을 비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조계사 신도와 장애인들 60여명은 "대웅전 방화 책임자가 밝혀지지 않았고 총정스님의 교시가 사법부에 의해 무시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강경 저지했다. 집행관측은 이날 정화회의측에 11일의 판결문을 전하고 퇴거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조계사 경내 진입이 어려워지자 집행관측은 전화로 정화회의측 대표자 스님이 나와서 관련 등을 받아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화회의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조계사 신도대표 3인이 집행관을 만나기 위해 나왔으나 집행관측은 "제 3자인 조계사 신도대표는 만날 수 없다"며 정화회의측 대표자 스님이 나올 것을 계속 요구했다. 집행관측은 오전 8시와 9시 30분 두차례 조계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되자 "이는 분명한 공무집행 방해"라 규정하고 "후후 다른 방법을 통해 집행을 계속 하겠다"고 밝히고 법원으로 돌아갔다. 18일 법원의 법집행이 무위로 끝난 것과 관련 총무원 청사 공권력 투입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총무원측은 공권력의 개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불자들은 연방연시를 앞두고 공권력과 정화회의 측의 충돌로 사회적인 물의를 다시 일으키는 것보다는 종단 자체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임연태 기자



18일 오전 8시 조계사 정문에 도착한 강석열 집행관이 길을 막고 있는 조계사 신도와 장애인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내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고영배 기자

### 18일 법집행 현장      조계사 신도-장애인등 진입 저지

18일 조계사 앞길에는 이른 시간부터 경찰병력이 추가 배치되고 취재진이 몰려들어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계사 출입구는 신도와 장애인들로 봉쇄됐다. 오전 8시 집행관 일행이 도착하자 조계사 경내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장애인과 조계사 건너편 길에는 중앙총무원과 공강호법단 소속 스님 1백여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집행관과 조계사 신도들이 9시30분까지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조계사 인근의 불구집들은 문을 열지못해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또 출입구의 시민들도 우정국도를 지나며 차선을 무단으로 넘나드는 스님과 경찰병력, 취재진들을 향해 "집안 싸움으로 시민만 불편하게 한다"며 불평 목소리를 내 보였다. 이날 법집행 현장에는 2백여명의 경찰병력이 만악의 사태를 대비해 배치됐으며 내외신 취재진도 60여명이 나와 조계사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했다. 임연태 기자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http://www.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http://news.buddhapia.com>  
 부다피아갤러리 <http://gallery.buddhapia.com>  
 부다피아쇼핑몰 <http://mall.buddhapia.co.kr>

현대불교신문사와 홈TV인터넷이 함께하는  
**불교정보화의 새로운 출발**

TV INTERNET으로 만드는 사찰전산화      TV INTERNET의 강력한 기능

- 기존TV에 단말기 연결
- 컴퓨터를 몰라도 간단한 리모콘 동작으로 인터넷 가능
- 불교계 뉴스를 현재시간으로 확인
- 국내외 인터넷 정보 사용 및 불교정보 검색 가능
- 사찰에서 TV를 통한 인터넷 접속 및 전자우편 확인
- TV 인터넷을 통한 실행 듣기 가능
- 신행상담/불법공부/신도와의 대화가능
- 뉴스,홍소평,경제,문화등의 다방면의 실용 정보 제공
- 화면 컬러 프린팅 지원
- 불교신자들 간의 대화 공간 제공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 비디오와 같은 손쉬운 연결
- 전화선을 이용한 PC통신보다 20배 이상 빠른 고속 인터넷 접속
- 마우스가 내장된 무선키보드를 기본 제공하여 사용의 편리성
- 인터넷망을 이용한 운영체제(OS)자동 업그레이드
- 지루한 부팅 시간없이 5초내 단시간 인터넷 접속
- 고장의 염려없이 뛰어난 안전성
- 기존의 TV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성 및 뛰어난 공간활용성

◎ 전국지사 및 대리점 모집합니다

◎ HOME TV INTERNET 구성: 기존 TV + 수신기 + 무선키보드,마우스 (수신기 가격: 395,000원, 부가세 별도)  
 ◎ 인터넷망: 케이블 TV, ADSL, ISDN, LAN, 전화선

· 사찰정보화 협력업체  
 (주)현대불교신문사 : 02)737-8881(대표)  
 부다피아 직통 : 02)732-1520

HOME 홈TV인터넷(주) · 주소: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91-6 상경빌딩 3층 · 문의전화: 02-295-6660